

【 해외금융 뉴스: 중국 】

중국외환관리국, 유로화 채권 매각설 일축

- 남유럽발 재정위기로 인한 유로화 가치 급락으로 최근 제기된 중국정부의 유로화 채권 매각설이 글로벌 금융시장에 큰 파문을 일으키자 중국외환관리국(国家外汇管理局)은 이례적으로 전면 부인하고 나서 주목됨.
 -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즈 5월 26일자 기사에서 남유럽발 재정위기로 유로화 가치가 급락하자 중국정부가 현재 약 6,300억 달러로 추산되고 있는 유로화 채권 비중을 축소하기 위해 조만간 채권을 대거 매각할 것이라고 보도함.
 - 이 소식이 보도되자 달러대비 유로화 가치가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며, 미국 다우지수가 올해 2월 초 이래 처음으로 10,000선을 하회하는 등 유럽,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주식시장이 급락함.
 - 파장이 확산되자 중국의 외환전담기구인 중국외환관리국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례적으로 중국의 유로화 채권 매각설은 근거없는 소문에 불과하다고 일축하고, 주요 투자처인 유럽시장에 대한 투자는 분산투자 및 장기투자 원칙에 따라 향후에도 지속될 것임을 재확인함.

- 이번 사건에 대해 전문가들은 현재 유럽경제에 대해 부정적인 전망이 우세하고 특히, 세계 최대 외환보유국인 중국의 위상이 크게 확대된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분석하고 있음.
 - 중국의 유로화 채권 비중 축소설은 글로벌 금융시장이 유로화와 관련된 정보에 매우 민감해져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.
 - 또한 남유럽 재정위기로 유럽 전체 경제성장 전망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사실무근의 부정적 소식에도 투자심리가 급격하게 위축될 수 있음을 보여줌.
 - 특히,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가 향후 유로화 향방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세계 최대 외환보유국인 중국의 외환 관련 정책이라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고 평가하고 있음.

(중국외환관리국 홈페이지, 경제참관보, 5/31)